

‘밥이 맛있는 집 찾으려면 전북에서’

농식품부 ‘미’s Korea’를 찾아라 공모 접수 결과 도내 120개소 추천 전국에서 20%가량 차지

19일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해 밥과 쌀 요리 맛집 찾는 ‘미’s Korea를 찾아라’ 공모전이 15일 접수 마감 결과 도내에 총 120개소가 추천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620개소가 신청(밥이 맛있는 식당 428, 쌀 요리 맛집 192)된 가운데 도내 식당(맛집)은 120개소로 전체적으로 20%(정도를) 차지했다.
도내 밥이 맛있는 식당은 107개소로 25%, 쌀 요리 맛집은 13개소로 7%를 차지하였으며, 17개 시·도 평

균 36개소(6%)보다 80개 초과 신청된 것이다.
추천 식당(맛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미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20곳의 ‘미’s KOREA’를 선정할 계획이다.
밥 맛이 남다른 ‘미’s KOREA’는 10개소, 쌀 요리로 소문난 ‘미’s KOREA’는 10개소가 선정되며, 식미평가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 후, 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맛의 고장으로



전주시내 어느 식당에 차려진 밥상.

〈사진=Google 제공〉

로 우수한 도내 쌀을 이용한 맛 집이 많아 추천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s KOREA’를 통해

전북 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호주 크레인 제조업체, 전주 반월동에 ‘등지’

ACM사 공장 개소... 2년 내 300만달러 투자 공장 증축

호주의 크레인 제조전문업체가 전주 시 반월동에 개소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ACM(Australian Crane & Machinery)사는 사장과 임원, 전북도, 전주시, 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동 공장 개소식을 가졌다.
ACM사는 지난 1976년 호주에 설립돼 철도와 전력, 토목, 건설, 자원개발 등에 사용되는 중소형크레인과 대형 크레인을 생산하는 크레인 전문제조

업체다.
이번 전주공장 개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개로 진행된 기업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
ACM사는 지난 7~8년 동안 크레인의 일부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해 모듈로 제작한 후 완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인하고 한국 제조공장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ACM사는 우선 크레인 제조를 위해 약 2,600㎡(800평)의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향후 2년내 3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최대 3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는 오는 9월부터 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 부품을 생산하고 11월부터는 완제품을 생산해 호주와 미국, 중동지역 수출길에 오른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사고 내고 신분 숨겨”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9일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과 관련, “사고 후 조사를 받는데 직원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고, 그로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음주운전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직업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허위로 진술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1993년 11월22일 강원경찰청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부 직원의 발령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를 했다”라며 “귀가하던 중 남양주 부근에서 차량을 두 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떠한 질책을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 매일 INDEX
3면 정진숙 사무처장 선임 배경 관심사



무죄 판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9일 오후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가습기특위, 영국 옥시 본사 방문 무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 19일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커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가습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가습기특위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레킷벤커의 CEO인 라케시 카푸어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본사 개입 여부와 관련한 의혹을 질의하고, 이 과정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과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요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레킷벤커 측에서 영국에서 진행될 모든 면담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밝히고, 공개사고 또한 거부하겠다고 전하면서, 특위는 본사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또한 이같은 특위 방침에 공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대신 오는 29일 예정된 청문회 이후 영국 방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사드로 한·중 관계, 중·일처럼 악화 가능성”

“양국 이익 해치는 걸림돌”

중국 전문가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극도로 악화된 중·일 관계처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

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중일 관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저우 교수는 또 “한·중 관계의 현황에서 중·일 관계의 그림자가 보인다”면서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변한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국립세종로사립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